

# 뇌병변장애인 고용특성 및 취업 영향요인

##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and Factors Affecting the Employment of Individuals with Brain Disorder

박주영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Ju-Young Park(tuwoollip@jj.ac.kr)

### 요약

본 연구는 뇌병변장애인의 고용특성 및 취업 영향요인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317명이다. 분석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카이스퀘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는 장애건강 요인, 취업관련 요인, 가구관련 요인으로 구성된다. 첫째, 뇌병변장애인 취업집단에 비해 중증장애,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일상생활 도움제공자가 없는 경우, 보조도구가 없는 경우, 고학력, 유자격증, 공공취업서비스 경험이 있는 경우, 주변인 취업알선 받은 경우, 직접 구직 문의 경험이 있는 경우, 유배우자, 비수급자, 가족 취업지지가 높은 경우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뇌병변장애인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학력,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 배우자, 기초생활보장수급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바탕으로 뇌병변장애인의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상생활, 교육제도, 사회관계망의 강화와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의 수정에 대해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뇌병변장애인 | 고용특성 | 취업 영향요인 |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and factors affecting of employment of person with Brain disorder. Participants were 317 individuals with brain disorders. Data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 test, regression analyses. according to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in Korea. These factors were classified into disability and health factors, employment related factors, and household related factors. First, The employment group showed significantly severe disorder, higher health status, absent of daily life helper, absent of assistive devices, higher level education, licenses, public employment service, job arrangement of acquaintance, find a job oneself, married, absent of basic living security assistance, greater supports of family compared to the unemployed group. Second,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of individuals with brain disorders included daily life helper, education level, job arrangement of acquaintance, married, basic living security assistance. Base on these results, developing dailylife and education system and social supported system and modifying the benefit system can promote employment acquisition of individuals with brain disorder.

■ keyword : | Individuals with Brain Disorder |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 Factors Affecting the Employment |

## I. 서론

최근 한국의 일자리는 외환위기후 실업률이 최악인

상황으로 일자리엔진이 멈춰 섰다고 평가받고 있고[1], 국제노동기구가 공개한 글로벌 고용 및 사회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세계 실업률은 5.0%이고, 일자리

접수일자 : 2019년 03월 19일  
수정일자 : 2019년 04월 15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4월 15일  
교신저자 : 박주영, e-mail : tuwoollip@jj.ac.kr

질은 점점 악화되고 남녀격차 문제도 여전하다는 분석이다[2]. 한국의 2018년 12월 고용 지표는 연간 실업률 3.8%로 2001년 4.0%를 기록한 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3]. 이러한 결과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인구 증가 폭 축소, 자동차 등 제조업 부진, 서비스업 구조조정 등이 겹친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국내외의 모두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은 의학적 손상과 기능적 활동 제약으로 사회에서 차별, 배제 등의 부정적인 환경과 상호작용하게 되고, 이는 생산적 활동과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하는 것은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어렵다[4].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인 취업정책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는 조취를 취하고 있다. 장애인 취업률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와 민간의 장애인 고용률이 증가하여 단시간에 장애인의 일자리가 확대되어 양적 성장이 확인되고 있다[5].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률은 34.5%로 전체인구 61.3%에 비해 26.8%p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뇌병변장애인 고용률도 12.3%로 장애인 고용률에 비해 22.2%p 낮고, 15개 장애유형 고용률 중 정신장애와 함께 가장 낮은 수치로 확인된다[6].

한편, 뇌병변장애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7]. 2000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지체장애에 속해 있던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은 뇌병변장애라는 새로운 장애영역으로 분류되었다. 뇌병변장애는 외부신체장애로 분류되고, 동일 등급이라도 매우 다양한 신체적 특성을 갖고 있다. 주로 불수의운동과 근육의 긴장으로 인해 신체적 활동의 제약과 의사소통 어려움이 있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한다. 뇌병변장애인 44.4%가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또는 거의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28.8%가 일부 도움을 필요로 한다[6]. 이러한 도움은 가족, 활동보조인 등의 일상생활지원과 근로지원인의 직장생활 지원이 대표적이다. 최근 근로지원인제도가 뇌병변장애인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도움을 통해 취업과 직업유지가 가능해지고 있다. 반면, 지적능력은 정상범주

이므로 적합한 교육을 받고 적합한 의료서비스와 보조장비를 갖추고 직업생활에서 작업환경의 개조와 고용주들의 인식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취업률보다 더 높은 취업률을 획득할 수 있음에도 취업시장에 진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8]. 하지만, 뇌병변장애인의 교육수준은 무학(9.3%), 초졸(26.3%), 중졸(15.6%), 고졸(29.4%), 대졸(19.3%)로 고졸이상이 48.7%로 절반이하 수준이고,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그만둔 이유의 79.7%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6]. 이는 2019년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것과 비교해보면 51.3%가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어 뇌병변장애인의 교육기회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적 활동도 제한적인데 친구, 친척 등의 모임 29.8%, 가족모임 21.4%, 자조모임 3.5%로 적극적 사회적 활동을 통한 사회관계망의 구축은 매우 미비하다. 활발한 사회활동은 취업정보 취득, 취업처 추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뇌병변장애인의 사회활동 현황을 살펴봤을 때, 직업생활로의 연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렇게 장애인집단 중 가장 취업률이 낮은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관련 연구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일상생활, 사회생활 참여와 교육, 치료, 재활 등의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다. 뇌병변장애인의 취업 관련 연구도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취업 영향요인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적다[8-11]. 장애인 취업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장애집단 전체를 분석하거나 성별, 연령대별로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뇌병변장애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뇌병변장애인의 고용 특성 및 취업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뇌병변장애인의 취업자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뇌병변장애인은 취업여부에 따라 집단 특성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뇌병변장애인의 취업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 II. 문헌 고찰

### 1. 뇌병변장애인 취업

2018년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37.0%, 고용률 34.5%, 실업률 6.6%로 나타났다[6]. 전체인구 경제활동참가율 63.9%, 고용률 61.3%, 실업률 4.0%와 비교해 보면,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6.9%p, 고용률 격차 26.8%p, 실업률 격차 2.6%p로 나타난다. 또한, 2017년 대비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1.7%p 감소하였고, 고용률은 2.0%p 하락하였으며 실업률은 0.9%p 증가하였다. 전체인구는 전년 대비 경제활동참가율 0.3%p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동일하며 실업률은 0.4%p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장애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지고 고용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높아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체인구 대비, 전년 대비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취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표 1].

표 1.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15세 이상 인구)

구분		15~64세 인구	경제활동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
장애인구	2017년	2,460,080	953,008	898,475	54,533
	2018년	2,495,043	922,897	861,648	61,249
	증감	34,963	-30,111	-36,827	6,716
전체인구	2017년	43,735,000	27,828,000	26,824,000	1,003,000
	2018년	44,141,000	28,184,000	27,064,000	1,121,000
	증감	406,000	356,000	240,000	118,000

  

구분		비경제활동인구	경향률	실업률	고용률
장애인구	2017년	1,507,072	38.7	5.7	36.5
	2018년	1,572,146	37.0	6.6	34.5
	증감	65,074	-1.7	0.9	-2.0
전체인구	2017년	15,907,000	63.6	3.6	61.3
	2018년	15,956,000	63.9	4.0	61.3
	증감	49,000	0.3	0.4	0.0

다음으로 장애유형별 장애인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을 살펴 보았다. 안면장애가 51.6%로 고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간장애(43.8%), 지체장애(42.5%), 시각장애(41.4%), 청각장애(31.9%), 언어장애(30.9%)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고용률은 뇌병변장애와 정신장애가 각 12.3%로 나타났고 호흡기장애(14.4%), 자폐성장애(19.8%), 뇌전증장애(21.2%)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뇌병변장애인은 전체 장애인구 고용률 34.5% 대비 1/3 수준으로, 정신장애 유형과 함께 가장 낮은 고용률로 확인되었다[표 2].

표 2. 15개 장애유형별 장애인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장애유형	15세이상 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지체장애	1,251,749	531,608	687,200	42.5
뇌병변장애	244,210	29,918	209,900	12.3
시각장애	250,978	103,916	138,943	41.4
청각장애	298,707	95,288	197,721	31.9
언어장애	17,629	5,455	11,505	30.9
지적장애	179,146	45,473	129,472	25.4
자폐성장애	15,511	3,067	12,340	19.8
정신장애	101,148	12,435	85,777	12.3
신장장애	83,333	19,621	62,839	23.5
심장장애	5,208	1,205	3,886	23.1
호흡기장애	11,772	1,690	10,015	14.4
간장애	11,514	5,047	5,848	43.8
안면장애	2,665	1,376	1,221	51.6
장루요루장애	14,642	4,099	10,443	28.0
뇌전증장애	6,831	1,451	5,037	21.2
전체	2,495,043	861,649	1,572,147	34.5

## 2. 뇌병변장애인의 취업 영향요인

뇌병변장애인의 취업 영향요인 연구의 수가 적어 [8-11] 선행연구 분석에 어려움이 있어,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한 변수를 구성하였는데 연구대상, 연구방법에 따라 변수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 2.1 장애건강 요인

뇌병변장애인 취업 영향요인 연구에서 장애가 경증인 경우, 활동능력이 좋을수록 취업비율이 높으며, 보조 도구는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연구 결과가 있고[8],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하는 경우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9]. 청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취업 후 지원기간 동안에 입원치료, 근육손상, 휠체어 이용자, 기능제한, 만성질환 등은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업자가 되는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가 있고[12], 타인의 도움을 받는 정도가 낮은 뇌병변장애인의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다[11]. 반면, 뇌병변장애의 장애등급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10]. 대부분 장애인 취업 영향요인 연구에서 경증 장애인의 취업비율이 높고, 중증장애는 장애로 인한 낮은 생산성으로 소득이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13-22]. 또한, 대부분 연구에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취업비율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고 [18][23-25],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장애인은 취업이

어렵다는 연구가 있다[26]. 반면, 장애정도는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도 있다[4].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취업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13][18][27]와 도움이 필요할수록 취업비율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24]. 반면, 일상생활도움 제공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취업확률이 높아진다는 보고[25]와 일상생활도움 제공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16][28].

## 2.2 취업관련 요인

뇌병변장애인 취업 영향요인 연구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자격증이 있는 경우 취업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고[8][9][29], 취업정보제공처가 있는 경우 취업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8][29], 반면, 학력은 취업에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0][11]. 대부분 장애인 취업 영향요인 연구에서 고학력일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4][8][12][16][18][20][30-36]. 반면, 저학력일수록 취업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13][17][24][37]와 고학력일수록 취업비율이 낮다는 연구결과[22], 학력은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30][38]. 이렇게, 뇌병변장애인은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대부분이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결과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진다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있는데, 이는 뇌병변장애인은 인지능력에 제한이 없고 고학력일수록 직업선택의 폭이 넓고 고임금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신적 장애유형의 반영으로 인지수준의 제한이 있고, 여성장애인인 경우 낮은 학력의 단순직종에서 낮은 임금으로 취업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수 연구결과 유자격증은 취업비율을 높인다고 보고하였다[8][22][24][25][27][39]. 다수 연구에서 고용서비스 이용경험은 장애인 취업비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고[25][27][39], 유의미하지 않다는 일부 연구결과도 있다[18][24]. 발달장애인 취업요인 연구에서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은 취업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접 구직문의는 취업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하였다[40]. 본 연구에서는 공공 취업서비스 경험,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 직접 구직문의

경험을 변수로 선정하여 자발적 취업노력의 취업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2.3 가구관련 요인

뇌병변장애인 취업 영향요인 연구에서 유배우자가 취업률이 높다는 보고와[8][9][29], 배우자는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다[11]. 뇌병변장애인이 비수급자인 경우 수급자보다 취업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8][11]. 대부분 장애인 취업 영향요인 연구에서 유배우자가 취업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18][19][24][25][27][29][31][36][41][42], 일부는 무배우자가 취업비율이 높다고 보고하였다[13][21][37]. 이렇게, 뇌병변장애인은 유배우자가 취업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대부분이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결과 무배우자가 취업률이 높아진다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있는데, 이는 뇌병변장애인은 남녀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근로소득을 통한 추가소득원이 뇌병변장애인인 경우이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을 주대상으로 하여 배우자와의 이혼, 사별이나 미혼인 여성장애인이 근로소득을 통한 주소득원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수 연구결과 기초생활비수급자가 취업비율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4][13][17][18][21][22][24][25][27][28][38]. 주로 발달장애인 연구에서 가족의 취업지지가 높을수록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뇌병변장애인도 가족의 취업지지가 높을수록 직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족의 심리적 지지가 취업활동과 직업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해를 근거로 변수로 선정하였다.

뇌병변장애인 취업 영향요인은 다양한 변수들이 있으나, 장애인 고용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변수에 제한이 있다. 본 연구는 장애건강 요인으로 장애정도,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보조도구를 변수로 정하였고, 취업관련 요인으로 학력, 자격증, 공공 취업서비스 경험,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 직접 구직문의의 경험을 변수로 정하였으며, 가구관련 요인으로 배우자, 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가족 취업지지를 변수로 정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패널 2차웨이브 2차조사 자료(2017년)를 이용하였다. 장애인 고용패널 조사는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는 국가통계로 장애인의 고용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전체 응답자는 4,577명이며, 본 연구 대상자인 뇌병변장애인은 317명으로 취업자 88명, 미취업자 229명이다.

#### 2. 변수정의 및 측정

종속변수는 취업 여부로 취업 1, 미취업 0이다. 독립변수는 장애건강 요인, 취업관련 요인, 가구관련 요인으로 구성된다[표 3].

표 3. 주요변수

구분		세부내용	
종속 변수	취업	1=취업, 0=미취업	
독립 변수	장애건강 요인	장애정도	1= 중증, 0=경증
		전반적 건강상태	1=매우 좋지 않음, 2= 좋지 않음 3=좋음, 4=매우 좋음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1=있음, 0=없음
		보조도구	1=있음, 0=없음
	취업관련 요인	학력	1=무학, 2=초졸이하, 3=중졸이하, 4= 고졸이하, 5=대졸이상
		자격증	1=있음, 0=없음
		공공취업서비스 경험	1=있음, 0=없음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	1=있음, 0=없음
	가구관련 요인	직접 구직문의 경험	1=있음, 0=없음
		배우자	1=유배우, 0=무배우
기초생활보장수급		1=수급, 0=비수급	
가족의 취업지지		1=전혀 지지하지 않음, 2=지지하지 않음, 3=보통, 4=지지함, 5=매우 지지함	

####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뇌병변장애인 주요 변수 특성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취업집단과 미취업집단 차이 분석에는  $\chi^2$  분석을 실시하였다. 뇌병변장애인의 취업 영향요인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Statistics 24.0을 활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변수 특성 및 취업자 특성

##### 1.1 변수 특성

장애관련 요인에서 장애정도는 경증이 53.6%, 중증이 46.4%로 나타났다. 전반적 건강상태는 좋지 않음+매우 좋지 않음이 59.9%로 좋음+매우 좋음(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상생활 도움제공자는 있음 48.3%, 없음 51.7%로 나타났다. 보조도구는 없음이 70.5%로 있음(29.5%)보다 높게 나타났다. 취업관련 요인에서 학력은 고졸이 41.0%로 가장 많고, 대졸 이상(26.5%), 중졸(20.5%), 초졸 이하(12.0%)로 나타났다. 자격증은 없음이 74.1%로 있음(25.9%)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공취업서비스 경험은 있음이 11.4%로 없음(88.6%)보다 낮게 나타났고,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도 있음이 11.7%로 없음(88.3%)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직접 구직문의 경험 있음이 6.9%로 나타났다. 가구관련 요인에서 배우자는 무배우자가 76.0%로 유배우자(24.0%)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는 비수급이 67.1%로 수급(32.9%)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의 취업지지는 지지함 61.4%, 지지하지 않음(20.2%), 보통(18.4%)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인 뇌병변장애인은 경증장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없음, 보조도구 없음, 고졸, 자격증 없음, 공공 취업서비스 경험 없음,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 없음, 직접 구직문의 경험 없음, 무배우자,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족의 취업지지가 높은 경우가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표 4].

표 4. 변수 특성

구분		N	%
장애정도	중증	147	46.4
	경증	170	53.6
전반적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않음	52	16.5
	좋지 않음	137	43.4
	좋음	120	38.0
	매우 좋음	7	2.2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있음	153	48.3
	없음	164	51.7
보조도구	유	93	29.5
	무	222	70.5
학력	초졸 이하	38	12.0
	중졸 이하	65	20.5
	고졸 이하	130	41.0

	대졸 이상	84	26.5
자격증	있음	82	25.9
	없음	235	74.1
공공취업서비스 경험	있음	36	11.4
	없음	281	88.6
주변취업알선 경험	있음	37	11.7
	없음	280	88.3
직접 구직문의 경험	있음	22	6.9
	없음	295	93.1
배우자	유배우	76	24.0
	무배우	241	76.0
기초생활보장수급	수급	104	32.9
	비수급	212	67.1
가족의 취업지지	전혀 지지하지 않음	35	12.6
	지지하지 않음	21	7.6
	보통	51	18.4
	지지함	93	33.6
	매우 지지함	77	27.8

### 2.1 취업자 특성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가 71.6%로 가장 많았고 임시근로자(19.8%), 일용근로자(8.6%)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유형은 사무종사자가 34.6%로 가장 많았고 단순노무 종사자(30.9%),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1.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9.9%), 판매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각 4.9%, 관리자(2.5%), 서비스종사자(1.2%)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유형은 민간회사(개인회사)가 64.2%로 가장 많았고 정부 및 관련 기관(23.5%), 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8.6%), 기타(3.7%)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는 50인 미만이 41.9%로 가장 많았고, 200인 이상(38.7%), 50~99인 미만과 100~199인 미만은 각 9.7%로 나타났으나 응답자 수가 적어 대표성을 담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근무시간은 전일제가 74.1%로 시간제(25.9%)보다 많았다. 근속기간은 3년 이상이 39.5%로 가장 많았고, 1년 이하(35.8%), 1년 이상~2년 이하(17.3%), 2년 이상~3년 이하(7.4%)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은 100~200만원이 46.3%로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18.7%), 50~100만원 미만(17.5%), 50만원 미만(12.5%), 300만원 이상(5.0%)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인 뇌병변장애인 중 취업자는 상용근로자, 사무종사자, 민간회사, 50인 미만 사업장, 전일제 근무, 근속기간 3년 이상, 100~200만원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취업자 특성

		구분	N	%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58	71.6
		임시근로자	16	19.8
		일용근로자	7	8.6
		계	81	100.0
직업 유형		관리자	2	2.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	9.9
		사무종사자	28	34.6
		서비스종사자	1	1.2
		판매종사자	4	4.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	4.9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11.1
사업체 유형		단순노무 종사자	25	30.9
		계	81	100.0
		민간(개인)회사	52	64.2
		정부 및 공공기관	19	23.5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6	8.6
사업체 규모		기타	3	3.7
		계	80	100.0
		50인 미만	13	41.9
		50~99인 미만	3	9.7
		100~199인 미만	3	9.7
근무시간		200인 이상	12	38.7
		계	31	100.0
		전일제	60	74.1
근속기간		시간제	21	25.9
		계	81	100.0
		1년 이하	29	35.8
		1년~2년	14	17.3
월평균 임금		2년~3년	6	7.4
		3년 이상	32	39.5
		계	81	100.0
		50만원 미만	10	12.5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4	17.5
월평균 임금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7	46.3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5	18.7
		300만원 이상	4	5.0
		계	80	100.0

### 2. 집단 차이

장애관련 요인의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집단이 미취업집단에 비해 중증장애 비율이 높았고(F=27.386, p<.001), 취업집단이 건강상태가 좋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F=139.580, p<.001). 취업집단이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없음 비율이 높았고(F=17.647, p<.001), 취업집단이 보조도구 없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F=13.783, p<.001). 취업관련 요인의 모든 변수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집단이 미취업집단에 비해 대졸 비율이 높았고(F=38.148, p<.001), 취업집단이 자격증 있음이 높게 나타났다(F=19.044, p<.001). 취업집단이 공공취업서비스 경험 있음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F=12.675, p<.001), 취업

집단이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 있음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F=33.100, p<.001$ ), 취업집단이 직접 구직문의 경험 있음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F=5.831, p<.05$ ). 가구관련 요인의 모든 변수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집단이 미취업집단에 비해 유배우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F=10.258, p<.01$ ), 취업집단이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F=33.618, p<.001$ ), 취업집단이 가족의 취업지지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F=37.413, p<.001$ ). 본 연구 대상자인 뇌병변장애인 취업집단은 미취업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증장애,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없음, 보조도구가 없음, 고학력, 자격증 있음, 공공 취업서비스 경험 있음,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 있음, 직접 구직 문의 경험 있음, 유배우자,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족의 취업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집단 차이

구분(N,%)		취업	미취업	$\chi^2$	p
장애정도	중증	68(77.3)	102(44.5)	27.386	.000***
	경증	20(22.7)	127(55.5)		
전반적 건강상태	좋지 않음	29(33.3)	160(69.9)	139.580	.000***
	좋음	58(66.7)	69(30.1)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있음	24(40.0)	145(69.7)	17.647	.000***
	없음	36(60.0)	63(30.3)		
보조도구	있음	12(14.0)	81(35.4)	13.783	.000***
	없음	74(86.0)	148(64.6)		
학력	중졸 이하	11(12.5)	92(40.2)	38.148	.000***
	고졸 이하	34(38.6)	96(41.9)		
	대졸 이상	43(48.9)	41(17.9)		
자격증	있음	38(43.2)	44(19.2)	19.044	.000***
	없음	50(56.8)	185(80.8)		
공공취업서비스	있음	19(21.6)	17(7.4)	12.675	.001***
	없음	69(78.4)	212(92.6)		
주변인 취업알선	있음	25(28.4)	12(5.2)	33.100	.000***
	없음	63(71.6)	217(94.8)		
직접 구직문의	있음	11(12.5)	11(4.8)	5.831	.024*
	없음	77(87.5)	218(95.2)		
배우자	유배우	32(36.4)	44(19.2)	10.258	.002**
	무배우	56(63.6)	185(80.8)		
기초생활보장수급	수급	7(8.0)	97(42.4)	33.618	.000***
	비수급	80(92.0)	132(57.6)		
가족의 취업지지	보통 이하	10(12.7)	97(49.0)	37.413	.000***
	지지함	33(41.8)	60(30.3)		
	매우 지지함	36(45.6)	41(20.7)		

\*p<0.05, \*\*p<0.01, \*\*\*p<0.001

### 3. 취업 영향요인

모형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chi^2=86.437, p<.001$ ), 투입 변수들의 설명력은 47.3%이

다. 관측빈도와 예측빈도의 차이에 대한 Hosmer-Lemeshow 적합통계량 검정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chi^2= 5.173, p= .739$ ) 본 연구모형은 실제 자료에 잘 부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변수 중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B=-1.044, p<.05$ ), 학력 ( $B=.494, p<.05$ ),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 $B=1.584, p<.05$ ), 배우자( $B=1.104, p<.05$ ), 기초생활보장 수급 ( $B=-1.836, p<.01$ )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있음이 없음에 비해 취업할 승산이 .352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이 한 단계 높아질수록 취업할 승산이 1.6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 있음이 없음에 비해 취업할 승산이 4.87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 있음이 없음에 비해 취업할 승산이 3.0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취업할 승산이 .160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있음이 취업할 승산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뇌병변장애인 대상 선행연구 결과[11], 다수의 장애인 대상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13][18][27] [표 7].

표 7. 뇌병변장애인 취업 영향요인

구분		B	S.E	OR	p
장애 건강 요인	장애정도	-.388	.425	.678	.361
	전반적 건강상태	.619	.321	1.857	.054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1.044*	.431	.352	.015
	보조도구	-.099	.535	.905	.852
취업 관련 요인	학력	.494*	.245	1.638	.044
	자격증	.414	.456	1.513	.364
	공공취업서비스 경험	.438	.913	1.550	.631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	1.584*	.749	4.877	.034
가구 관련 요인	직접 구직문의 경험	-1.222	1.180	.295	.300
	배우자	1.104*	.444	3.016	.013
	기초생활보장수급	-1.836**	.626	.160	.003
가족의 취업지지		.423	.218	1.527	.052
(상수)		-5.072	1.417	.006	.000
Model $\chi^2$ 86.437*** -2 LogLikelihood 162.395 Nagelkerke $R^2$ .473 Hosmer-Lemeshow $\chi^2$ 5.173(p=.739)					

\*p<0.05, \*\*p<0.01, \*\*\*p<0.001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할 승산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다수 뇌병변장애인 대상 선행연구 결과[8][9][29], 대부분 장애인 대상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4][8][12][16][18][20][30-36].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 있음이 취업할 승산이 높게 나온 결과는 발달장애인 대상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40]. 이는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처음 나온 결과로 의미가 있다. 유배우자가 취업할 승산이 높게 나온 결과는 다수 뇌병변장애인 대상 선행연구 결과[8][9][29], 대부분 장애인 대상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18][19][24][25][27][29][31][36][4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취업할 승산이 낮게 나온 결과는 일부 뇌병변장애인 대상 선행연구 결과[8][11], 대부분 장애인 대상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4][13][17][18][21][22][24][25][27][28][38].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뇌병변장애인 고용특성을 확인하고, 취업 영향요인을 분석하였고,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인 뇌병변장애인은 경증장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없음, 보조도구 없음, 고졸, 자격증 없음, 공공 취업서비스 경험 없음,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 없음, 직접 구직문의 경험 없음, 무배우자,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족의 취업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뇌병변장애인 취업자 특성은 상용근로자, 사무종사자, 민간회사, 50인 미만 사업장, 전일제 근무, 근무속기간 3년 이상, 100~200만원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뇌병변장애인 취업집단은 미취업집단에 비해 중증장애,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없음, 보조도구 없음, 고학력, 자격증 있음, 공공 취업서비스 경험 있음,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 있음, 직접 구직문의 경험 있음, 유배우자,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족 취업지지가 지지적인 경우로 나타났다.

넷째, 뇌병변장애인 취업 영향요인 분석에서 모형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설명력은 47.3%로 나타났다. 전체 변수 중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학력,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 배우자, 기초생활보장수급이 취업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있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취업할 승산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 있음, 유배우자가 취업할 승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뇌병변장애인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은 아래와 같다.

첫째, 뇌병변장애인의 일상생활도움 제공자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상생활도움 제공자 있음이 취업할 승산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낮은 경우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취업생활을 하고 있고 일상생활도움이 필요하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을 위한 직무지도원, 근로보조인, 활동보조인 등의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 활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뇌병변장애인 취업에 학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직업선택의 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고, 고학력 장애인인 경우 저학력에 비해 전문직이거나 차별이 적은 환경의 직업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저학력 뇌병변장애인 대상 교육서비스의 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적자본의 기초가 되는 교육수준의 향상을 통한 취업확대의 노력이 중요하므로 뇌병변장애인이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물리적 환경구성과 콘텐츠, 보조인적 자원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 뇌병변장애인은 인지수준에 제한은 없지만 신체활동기능에 제한이 있으므로, 많은 신체활동을 요구하는 직무보다 인지능력을 주요하게 요구하는 직무에 취업하려면 고등교육이 중요하다.

셋째, 뇌병변장애인 취업에 배우자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배우자인 경우 취업할 승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가족에 대한 의무감이 취업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취업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변수는 없지만, 뇌병변장애인이 가구의 경제활동을 전적으로 책임지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취업확률이 높아진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뇌병변장애인의 취업 영향 요인에 배우자의 소득활동 여부가 상관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뇌병변장애인 취업에 주변인의 취업알선 경험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변인의 취업알선 경험 있음이 취업할 승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뇌병변장애인이 심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가족, 친구, 지인 등에게 취업알선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뇌병변장애인이 적극적인 취업의지를 갖고 주변인을 활용한 노력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고, 뇌병변장애인이 공공 취업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물리적 접근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뇌병변장애인의 취업확률을 높이기 위해 사회관계망을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뇌병변장애인의 다양한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자조모임, 구직자모임, 소속학교 및 지역사회모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취업연계, 구직기술훈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뇌병변장애인 취업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급자가 취업할 승산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이는 수급비 삭감이나 수급권 탈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수급자가 취업을 꺼려하는 상황이라는 분석과 동일한 결과이다. 특히, 수급권 탈락은 뇌병변장애인의 주요한 지출항목 중 하나인 의료비 부담으로 연결되고, 이는 취업 방해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뇌병변장애인은 인지능력은 제한이 없으나 신체기능의 제한으로 인해 의료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장애유형이다. 따라서, 뇌병변장애인이 취업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취소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거나 수급권은 보존하고 수급비를 조절하거나 의료비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뇌병변장애인 취업 영향요인으로 선정한 변수는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변수 선정이 제한적이다. 또한, 단년도 데이터 활용으로 종단 비교는 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뇌병변장애인 집단규모가 적어 세부적 분석이 충분하지 못한 한계도 있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취업에서 가장 심각한 고용지표로 대표되는 뇌병변장애인의 취업 영향요인을 분석했다는 것

에서 의의가 있다.

## 참 고 문 헌

- [1] <https://www.yna.co.kr/view/AKR20180912083900002>, 2018.9.12.
- [2]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21410005492292>, 2019.2.14.
- [3] 통계청, 2018년 12월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2018.
- [4] 박자경, 김종진, “청년층 장애인 일자리 특성 및 취업 결정요인,” 직업재활연구, 제27권, 제1호, pp.1-22, 2017.
- [5] 류정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률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낮은 원인과 대응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
- [6] 박혜원, 김호진, 방종관, 임예직, 유완식, 김언아, 2018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8.
- [7] <http://www.moleg.go.kr/main.html>
- [8] 이준상,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의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제18권, 제2호, pp.57-82, 2008.
- [9] 김재익, 박경순, “뇌성마비인의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재활복지, 제22권, 제1호, pp.87-114, 2018.
- [10] 강순화, 손용근, “뇌병변장애인가족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제24권, 제3호, pp.199-224, 2008.
- [11] 임중호, “뇌성마비인의 고용 결정 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제9권, 제2호, pp.311-336, 2006.
- [12] T. Achterberg, H. Wind, A. de Boer, and M. Frings-Dresen, “Factors that promote or hinder young disabled people in work participation: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Vol.19, No.2, pp.129-141, 2009.
- [13] 김성희, *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결정요인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14] 나운환, 정명현, “장애인의 실업특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8권, 제6호, pp.267-285, 2004.

- [15] 류정진, 나운환, “장애인 취업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0권, 제2호, pp.167-193, 2006.
- [16] 백은령, 전동일, “지체장애인 근로자의 특성과 직업유지 결정요인,” 직업재활연구, 제17권, 제2호, pp.219-237, 2007.
- [17] 양정빈,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제35권, 제2호, pp.226-253, 2015.
- [18] 오소윤, 나운환,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영향 요인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제55권, 제3호, pp.517-536, 2016.
- [19] 이선우, “장애인의 경제활동유형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Multinomial Logit(다항로짓)을 이용한 분석,” 사회복지연구, 제18권, pp.113-135, 2001.
- [20] 전이상, *장애인 취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21] 정병오, “여성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복지행정논총, 제20권, pp.143-174, 2010.
- [22] 최운정, 박경수, 이석호,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장애와 고용, 제24권, 제3호, pp.123-146, 2014.
- [23] 김세연, 구인순, 박자경, “여성장애인의 고용현황 및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8호, pp.318-329, 2012.
- [24] 오세란, “장애인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장애와 고용, 제27권, 제1호, pp.255-278, 2017.
- [25] 이석원, 정솔,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장애와 고용, 제26권, 제1호, pp.41-66, 2016.
- [26] 조민수,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제1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09.
- [27] 김정아, 나운환, 김지민,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제52권, 제4호, pp.321-338, 2013.
- [28] 변용찬, 이정선, “취업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제55권, 제1호, pp.153-171, 2005.
- [29] 이형열, “장애유형별 취업근로자의 개인적 특성, 직업훈련, 직업만족이 직업유지 기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제32권, pp.109-134, 2007.
- [30] 강동욱, “노동시장의 여성장애인 이중차별구조,” 사회복지정책, 제15권, pp.7-32, 2002.
- [31] 유동철, “여성지체장애인에 대한 이중차별분석: 고용과 임금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15권, pp.73-108, 2000.
- [32] T. M. Butterfield and J. H. Ramseur, “Research and case study findings in the area of workplace accommodations including provisions for assistive technology: A literature review,” *Technology and Disability*, Vol.32, No.1, pp.201-210, 2004.
- [33] A. Honey, M. Kariuki, E. Emerson, and G. Llewellyn, “Employment Status transition among young adults, with and without ability,” *Australian Journal of Social Issues*, Vol.49, No.2, pp.214-235, 2014.
- [34] G. B. Lewis and C. L. Allee, “The impact of disabilities on federal career succes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52, No.4, pp.389-397, 1992.
- [35] R. Melin and A. R. Fugl-Meyer, “On predict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outcome at a Swedish employ ability institute,” *Journal of Rehabilitation Medicine*, Vol.35, No.6, pp.284-289, 2003.
- [36] Y. Wang and Y. Lin, “Employment outcome predictor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aiwan: A Preliminary study using ICF conceptual frameworks,” *Journal of Rehabilitation*, Vol.79, No.2, pp.3-14, 2013.
- [37] 백은령, “여성장애노인의 특성과 복지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충신대논총*, 제27권, pp.114-146, 2007.
- [38] 광지영, 신은경, “국민기초수급대상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실태 및 영향요인 분석,” 장애와 고용, 제16권, 제2호 pp.5-26, 2006.
- [39] 광지영, “장애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제20권, 제1호, pp.79-104, 2010.
- [40] 최진혁, 신별해, “발달장애인 취업의 성공 및 저해 요인 연구,” *지적장애연구*, 제20권, 제2호, pp.67-90, 2018.
- [41] D. Pfeiffer, “The Influence of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disabled people on their employment status and income,”

Disability, Handicap and Society, Vol.6, No.2,  
pp.103-114, 1991.

저 자 소 개

박 주 영(Ju-Young Park)

정회원



- 2013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2006년 7월 ~ 2015년 2월 : 한국장애인개발원
- 2015년 3월 ~ 현재 :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재활상담, 직업재활, 장애인복지